

# K-전자부품사, 성장축 이동... '스마트폰 → AI·전장' 재편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2.9% ↓  
 LG이노텍, 非 모바일 사업 확대  
 새로운 사업에 '피지컬 AI' 제시  
 삼성전기, 사업구조 전환 공식화  
 MLCC 중심 AI 서버용 등 확대



문혁수 LG이노텍 대표이사 사장이 23일 제 50기 주주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LG이노텍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가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2026년 경영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삼성전기

국내 전자부품사들의 사업 중심이 스마트폰 중심 모바일에서 인공지능(AI) 서버와 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스마트폰 부품이 여전히 실적을 떠받치는 핵심 사업이지만 시장 성장 둔화와 고객사 협상력 변화, 가격 경쟁 심화가 겹치면서 부품사들이 고부가 제품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는 모습이다.

23일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2.9% 감소한 11억2000만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 둔화와 원가 부담이 겹치면서 완성품 업체의 부품

단가 압박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LG이노텍의 경우 모바일 의존 구조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단일 고객 매출은 17조748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81%를 차지했고, 광학솔루션 매출은 18조3184억원으로 전체의 83.6%에 달했다.

이에 LG이노텍은 모바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非) 모바일 사업 비중을 20%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G이노텍은 23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문혁수 LG이노텍 사장은 "고부

가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전장과 기관 등 신사업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기존 주력 사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미래 성장 사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 분야를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제시하며 성장 방향을 구체화했다. LG이노텍은 해당 사업이 초기 양산 단계에 진입해 일부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로봇과 자율주행 등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문 사장은 주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기관과 전장 부품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있다고 밝혔다. 서버용 FC-BGA 등 고부가 기관 수요 대응을 위해 기존 대비 약 2배 수준의 증설을 추진 중이며,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모듈은 올해 4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기는 사업 구조 전환을 공식화했다. 삼성전기는 지난 1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AI 서버, 전장, 휴머노이드 중심으로 사업구조 전환을 가속하겠다"며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은 27%로 나타났다. 2021년 주요 고객 비중(약 39%)과 비교해 낮아진 수치로, AI 서버와 전장 등

비모바일 매출이 확대되면서 특정 고객 의존도가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기는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를 중심으로 한 기존 사업에서 나아가 AI 서버용 고용량 제품과 전장용 고신뢰성 부품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서버용 부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업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MLCC 가격 인상이 실제 계약에 반영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도 커지고 있다. AI 서버 중심 수요 확대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 전반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 중심 사업 구조의 한계가 부각되면서 부품사들이 데이터센터와 자율주행, 로봇 등 신규 수요에 대응해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장과 AI 관련 부품 사업은 초기 투자 부담이 크고 수익화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기존 모바일 사업을 기반으로 수익을 확보하면서 신사업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 고객을 위한 한화생명의 세심한 통보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무)



한화생명 알리미

원하는 보장을 더 촘촘하게!  
 총 121개의 선택 특약으로  
 내게 맞는 보장을 완성하세요! ✓



카타리프 수술

특정순환계 질환

암주요치료

\*해당 특약 가입 시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무)** 간편가입형 상품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 또는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카타리프수술보장특약]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하는 '카타리프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보장특약]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하는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암주요치료보장특약(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연1회)] 간편가입형의 경우,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인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암주요치료자금'의 50%로 계속 지급합니다. 이 보험 계약은 예금저축보험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 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6-01234호 (2026-02-12 ~ 2027-02-11) 준법감사인확인필 CS 26-02-013

홈페이지: www.hanwhalife.com 상담 번호: 080.365.6363

## '복합위험 대응형' 신현송 금리보다 금융안정 도모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 BIS "은행·국제금융·통화경제학 리더" 단순한 '매파·비둘기파' 구분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하면서, 한은 수장의 무게중심이 기준금리의 단선적 방향보다 금융안정과 대외충격 대응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 후보자는 BIS에서 글로벌 유동성·금융안정·통화질서 변화를 다뤘은 국제 거시금융 전문가다. 이번 인선은 단순한 '매파·비둘기파' 구분보다 복합위험 대응형 카드에 가깝다는 평가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신 후보자를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 권위자"라며 "중동 사태로 국제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불가 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함께 달성할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BIS에서 경제 연구 전반을 총괄하는 경제보좌관이자 통화경제국장으로 일해 왔다. BIS는 그를 "은행, 국제금융, 통화경제학 분야의 지적 리더"로 소개하고 있으며 "프린스턴대 교수와 옥스퍼드대-런던정경대 경력을 거친 학자이자 정책 실무형 인사"라는 평가다.

실제 그의 문제의식은 오랜 기간 금융

안정과 달러 유동성, 자본흐름 관리에 맞춰져 있었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16년 BIS 연설에서 "달러 강세가 은행의 위험선호를 약화시킨다"며 금융여건을 긴축시키는 경로를 짚었고, 과도한 레버리지와 부채 누증의 위험을 꾸준히 경고해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과잉 차입 위험에 지속적으로 경고해 온 경제학자란 분석이다.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시각도 지금 한국 경제와 맞닿아 있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22년 BIS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이 우선이다"면서도, "부채 수준이 매우 높고 특히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들에서는 금리 상승이 수요를 빠르게 식히고 금융안정 이슈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만이 아니라 긴축의 부작용과 금융시스템의 '균열선'을 함께 봐야 한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이번 인선을 '매파 총재' 한 단어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신 후보자의 강점은 금리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성향론보다, 물가·성장·가계부채·환율·자본흐름이 한꺼번에 얽힌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충격 전이 경로를 입체적으로 보는 데 있다. 그는 2013년 NBER 공동 논문에서 지난 2010년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도입 설계에 관여했다고 직접 밝힌 바 있어, 한국형 금융안정 정책과도 실질 접점을 가진 인물로 보인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